

# 문화행사 성공적... 사회참여는 저조

## 2008 부산불교계 결산 ① - 행사 외연 넓히고 불자들은 치열한 수행 속으로

2008년 불교계는 종교편향 논란으로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8월 27일 서울 시청 광장의 범불교도 대회를 시작으로 11월 1일과 15일에는 대구와 광주에서도 사부대중이 촛불을 들고 산문 밖으로 나왔다. 불교계를 둘러싼 외부 세력의 압력과 교계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 등으로 얼룩진 한해였지만,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불교수도' 부산경남 불교의 희망은 빛났다. 총 3회에 걸쳐 1편 문화관광, 2편 사회복지, 3편 불사 등 분야별 결산을 통해 올 한해 부산경남불교계를 정리한다.

### ■ 문화관광 분야

#### #불교행사 지역축제로

절집 잔치에 그치던 불교행사들이 불자와 비불자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축제로 범위가 확대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개산대제 때 뮤지컬 <맘미아>를 초청해 산사를 흥겹게 달랠 예정이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어)는 아예 '개산대제'라는 이름을 버리고, '금어문화축제'로 바꿔 불교가요를 비롯한 아프리카 민속춤, 팝과 재즈, 가수 안치환, 윤도현밴드 콘서트 등으로 세계음악축제를 벌였다. 부산 교계 연중행사인 '부산시민 연등축제'는 봉축연합대법회와 제등행진으로 시민에게 친근한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팔관회'는 법회와 전시를 결합한 '2008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처럼 불교행사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반면, 교계의 사회 참여는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자갈치축제에서 물고기 위령재 등으로 참여한 것처럼 부산의 세력적 축제인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락페스티벌' 등에도 참여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 #테마 템플스테이로 진화

절에 머물며 사찰 생활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각 사찰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낸 '테마 템플스테이'로 개발되면서 어느덧 범국민 휴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양산 금강사(주지 안도)는 불무도,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단기출가, 밀양 표충사(주지 정운)는 습지 체험을 테마로 저마다의 특성을 단

조롭기 쉬운 템플스테이에 가미해 주목받았다.

사찰만큼 스님, 수행자의 삶이 그대로 배어난 곳은 없다.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과 알찬 프로그램을 확충해 질적으로도 우수한 템플스테이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민는 불교에서 수행 불교로

무엇보다 올 한해는 일상 속 수행 문화의 정착이 유달리 눈에 띈 한 해였다. 부산 패션1번지 광복동 도심에 제1호 간화선 교육기관인 참선수행학교가 개원했고, 선서화전 문전서관인 여여선갤러리도 개관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불교를 불자들의 일상 가까이로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의 옷을 입힌 것. 또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첫 3박4일 참선철야용맹정진을 열고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참선정진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지리산 벽송사(선원장 월암)도 처음으로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를 열고, 간화선의 실참에 관한 모든 것을 전수했다. 점차 믿는 불교에서 공부하고 스스로 자성불을 깨닫는 불교로, 불자들의 수행자세가 변화하고 있다.

올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재가불자를 위한 참선수행 프로그램은 향후 활성화 여부에 따라 기복



해운정사 참선용맹정진(위), 통도사 개산대제 때의 맘미아 공연(아래).

성향이 짙은 현 신행풍토를 바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산경남 불

교계가 내년에는 불국토를 구현할 수 있을까, 새벽 먼동이 트고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팔관회·박람회 접목 축제로

## 2008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성료



불교문화엑스포에 마련된 부스들을 둘러보며 제품 설명을 듣는 스님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불교수도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나흘 간 펼쳐진 성대한 법연. 2008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가 12월 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예년의 팔관회의 틀을 깨고 불교전문화인 팔관회와 산업박람회를 접목해 하나의 축제로 재탄생시켰는데 의미가 깊다. 팔재계수계법회, 연등공양관음기도, 영가천도지장기도, 대입합격발원합동기도 등 팔관회 법회는 물론 불교미술, 율품, 여행, 서적 등 불교 산업 유관 업체 150여 곳이 총 200개 부스를 설치한 박람회의 형태를 결합한 대규모 기도와 축제의 장이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월 4일 3시 개막식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헌화, 허남식 부산시장의 고불문,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의 대회

사, 부산불교연합선도회 설동근 회장의 봉행사, 감사패 전달,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탐욕에 끌려 욕망·욕심에 물들어 있으면 맑고 청정한 지혜에 머물 수 없다"며 "항상 자신의 마음광명에 머물러서 가고 옳에 늘 맑고 여여한 자신의 참 성품 가운데 있음으로 허공처럼 결집 없는 삶을 살자"고 설했다. 이어 오후 5시 수계법회에서는 부산경남지역 5000여 불자가 수계를 받았다.

5일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연등공양관음기도가, 6일에는 사찰 연말정산 소양교육, 범진 스님의 달마 퍼포먼스, 영가천도 지장기도 등이 이어졌다. 7일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헌화, 허남식 부산시장의 고불문,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의 대회

박지원 기자

# 작은 힘 모아 이웃사랑 실천

## 부산불교신도회·부산불교교육대학·물운대복지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교계 복지관과 신행단체가 부처님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2월 1일 7층 법계정사에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비의 김장김치와 쌀 전달식을 가졌다. 연세구 및 서구, 영도구에서 조순 가정,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 등 위기가정 80세대를 추천받아 1세대 당 쌀 10kg과 김장김치를 각각 전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사장 강선태)은 11월 28일 교육대학 앞마당에서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부산진구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 400여 세대에 김장김치 2000kg을 전달했다.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도 12월 6일 김장김치 2200포기를 다대1동 물운대 영구임대아파트 및 다대본동 저소득 가정 350세대에 각각 배달했다. 3일간 12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눴다.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은 "연말연시에 우리 교계의 여러 단체들이 앞장서 불우이웃을 돕는 모습



부산불교신도회가 12월 1일 위기가정에 김장김치와 쌀을 전달하고 있다.

이 참 맑고 청정해 보기 좋다"며 "다 함께 살기 좋은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리더십 캠프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사장 정년)은 1월 19~21일 2박3일간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개최한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자기탐색과 체험활동, 공동체 활동과 자율활동 등 총 4가지 분야로 나눠 차례로 진로 탐색 심리검사 및 해석, 리더십 함양 심성개발 프로그램, 자신감 강화 스피치 트레이닝, 미디어 활용 자기표현활동, 해안 트레킹 등이 열린다.

초등학교 4~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참가비는 8만 원이다. (051)405-5223, www.youth119.co.kr 박지원 기자

# 교원 직무연수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전국 유치원,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 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2009년 1월 12~16일 5일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씩 진행되며 총 3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사찰예절, 통도사 인근 불교유적, 한국 사찰의 벽화, 불화이야기, 불화 그리기 실습, 한국의 불교공예, 간월사지와 운문사 현장답사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8만원으로 식대와 답사비, 재료비 일체가 포함돼 참가비용은 없다. 접수는 통도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055)384-0010 박지원 기자

# 따뜻한 겨울되기를...

## 법륜회 사랑의 연탄 배달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륜회 택시 안에 비치된 '보시함'에 담긴 작은 동전들이 모여 울려 올 큰 결실을 맺었다. 부산개인택시 법륜회(회장 김덕첸)는 11월 27일 오전 9시부터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1가구당 160장씩 25가구에 총 4000장. 모든 연탄은 법륜회 회원 100여 명이 손수레

와 지게를 이용해 직접 배달하고 위로 인사를 전했다.

김덕첸 회장은 "이 연탄 한 장 한 장은 모두 그 동안 법륜회 택시들이 운영하고 보시해준 부산시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것"이라며 "우리는 배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개인택시 법륜회는 매년 보시함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결손 가정 청소년 장학금, 경로잔치, 마산 국립결핵원 의료봉사, 고아원 봉사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광고는 서체 문제로 따로 보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